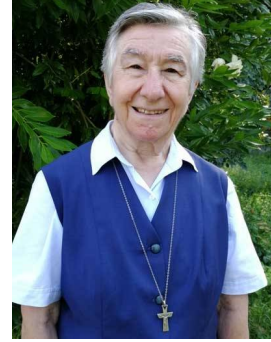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2024 년 3 월 11 일 오늘 12 시 40 분에
로마 총원 공동체에서
줄리엤타 마리아 스페랑자 차키니 수녀님께서
78 세 59 년 수도 생활을 마치고 선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에 줄리엤타 수녀님을 맡기는 오늘 전례의 시편에서 '주님 저는 당신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기에 기뻐 뛩니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빠스또렐라 사이에서 60 여년간의 축성봉헌생활을 한 줄리엤타 수녀님의 공동체 생활과 사도직 삶 안에 반영된 신앙과 기쁨을 드러냅니다.

줄리엤타 수녀님은 1945 년 6 월 13 일 보나비고에서 태어나, 같은 해 6 월 17 일 세례자 성 요한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61 년 8 월 23 일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으로 입회하였고, 1963 년 9 월 2 일 수련기를 시작하였습니다. 1964 년 9 월 3 일 마리아 스페란자 서원명으로 첫서원을 합니다. 1969 년 9 월 3 일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종신서원 할 때에 "빠스또렐라의 성소를 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빠스또렐라 성소의 아름다움과 책임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하고자 합니다."라 하였습니다.

줄리엤타 수녀님은 초기 양생기부터 기도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적 작업을 부지런히 하였고, 너그러우며 희생할 줄 알고, 모든 이에게 친절하며, 책임감이 있고, 인내심이 있고 사회성이 좋으며, 순명하고 애덕을 실천하였습니다. 수도회에 대한 사랑과 사목 사명에 대한 열정이 깊어서 공동체와 사도직에서 필요할 때 관대하게 응답하였습니다.

첫서원 후 리치리아노의 공동체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유기서원기를 다 보냈습니다. 1969 년 종신서원 후 판나라노에 파견되었고 1974 년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 들어가 면학기를 지냅니다. 1976 년 로볼로도에서 사목 직무를 수행하였고 공동체의 원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1981 년 보로메오 페스키에라 베플라로 이동하여 유치원에서 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1996 년 네그랄 공동체에서 1 년간 안식년을 지냈고 이어서 코로도바로 이동하여 유치원 교사와 공동체 원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2008 년 선교사로 볼리비아로 떠나 8 년간 관대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선교사의 삶을 기쁘게 삽니다. 선교사로 떠나기 위하여 준비하며 동료 수녀님들에게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위임구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떠나는 것이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줄리엤타 수녀님의 마음속에 선교의 보편적 사랑이 담겨있었고, 모든 백성 안에 있는 부유함을 맛보는 카리스마에 놀라워하였습니다.

2017 년 건강 때문에 이탈리아로 되돌아와 총원 공동체의 요청에 관대하게 응답하여, 총원에서 모든 이를 위한 환대의 사목과 성 브르노 본당의 환자 사목을 사랑으로 부지런히 수행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 년전에 암 수술을 받고 힘이 드는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끝까지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병고를 겪으면서도 선교를 위한 생각과 기도를 멈추기 않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며, 깊이 있고 성숙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수도회와 선교를 위하여 특히 사랑하는 볼리비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봉헌하였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수녀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고 가르침을 주어 감사하다며 수녀님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함께 한 수녀님들은 줄리엤타 수녀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았고, 항상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하였습니다. 기도를 매우 좋아하였고,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곤 하였습니다. 하느님 말씀과 성체에 대한 믿음이 매우 깊은 수녀님이었습니다.

우리 카리스마를 사랑하였고 카리스마를 충만한 선교 정신으로 삶으로 구현하며 살았습니다. 수녀님들과 수도회를 향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실하게 공동체와 수도 가족에 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화와 평화와 침묵을 사랑하였습니다. 겸손하고 주의 깊고, 봉사하고, 믿음이 깊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정확하고 시대의 징표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람들과 우리 수녀님들과 세상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뉴스를 시청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시간을 조금도 헛되이 쓰지 않고 주님과 관계를 더욱 깊이 하였으며, 주님과의 이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났습니다. 친절한 자세, 본당의 아픈 사람 혹은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전례를 잘 거행하고 성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수녀님에 대한 빠스또렐라의 아름다운 증언을 들을 수 있었고, 고통 중에서도 기쁘게 사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총원 공동체에 속하는 기쁨을 표현하였고, “수도회의 중심부에”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줄리엤타 수녀님의 마지막 시기를 사랑으로 관대하게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신 총원 공동체와 비아 트라베르사리 공동체의 모든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수녀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지탱이 되어주신 이탈리아 알바니아 모잠비코 관구의 수녀님들과 언니인 아드리아나 수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박애정신으로 수녀님을 가정 간호해 주신 ‘폰다지오네 사니타 에 리체르카’에도 감사드립니다.

줄리엤타 수녀님을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에 대하여 선한 목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줄리엤타 수녀님께 회개와 충실성과 성소의 선물을 얻어 달라고 중재 기도를 청합니다.

2024 년 3 월 11 일
총원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